

결혼이민자가족 관련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rograms Operation within all the Related Agency
Provides Services for Married-Immigrant Families in Korea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복지학과
교 수 김 양 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복지학과
부 교수 박 정 윤***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대학 가족복지전공
박사과정수료 김 효 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대학 가족복지전공
박사과정 백 선 아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chool of Human Ec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 Yang Hee Kim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chool of Human Ecology, Chung-Ang University
Associated Professor : Jeong Yoon Park

Major in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h.D Candidate : Hyo Min Kim

Major in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h.D Course Student : Sunah Paik

〈목 차〉	
I. 서론	IV.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현황 분석
II. 연구방법	V. 결론 및 제언
III. 선행 연구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in providing quality services to meet the

* 위 논문은 2007년도 중앙대학교 CAU 선도연구단 韓-스타일 전문 인력 양성사업단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 김양희 (kimyhee@cau.ac.kr)
*** 교신저자 : 박정윤 (pjy4838@cau.ac.kr)

needs of marri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The researched agencies in this study were 14 public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21 married-immigrant family support centers, and 11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located in the Seoul and Kyung-Gi areas. The program was categorized by the participating researchers, SPSS WIN 12.0 was used to calculate frequency, percentage and average then cross-tabulation was initi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rried-immigrant family support centers provide dominant services compared to public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are located in the region of Seoul and Kyoung-Gi in the service areas of education, counseling, culture, child care and protect, support group and network. 2) All agencies provide service targeted to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3) Three different types of agencies are mainly focused on providing Korean education programs. Married-immigrant family support centers and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are focused on providing computer skills programs. Public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are focused on providing vocation-oriented education. 4) Married-immigrant family support centers were investigated to service to the needs of married-immigrant families through networking with their neighboring communities.

Key Words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married-immigrant family support center), 결혼이민자(married-immigrant), 종합사회복지관(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 국공립기관(public agency),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agency)

I. 서론

오늘날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추세는 개인의 다양성, 자유 및 자율에 대한 욕구를 가속화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가족생활양식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문화와 이에 관련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결혼유형인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족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으며, 국제결혼은 주로 여성들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한국에서 한국남성들이 한국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우자 선택 전략으로서 결혼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한 국제결혼을 선택(한국염, 2004)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는 전체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하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결혼을 한 외국여성은 31,180건으로 전년도 25,594건보다 38.2%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들은 현재 한국에 결혼이민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 이들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한국생활에도 적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어려움은 주로 NGO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아왔으나 국제결혼 부부의 수적 증가와 이들이 갖는 문제점은 결국 국가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것들이 많으나(홍달아기, 2006), 현재 이들은 복지혜택

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 친족, 이웃의 지원이 축소된 남편으로 유일한 의지가 되는 체제 하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므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들은 개인 및 가족 내 적응과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른 문화 속에서 사회적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NGO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실시,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국제결혼부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국제결혼 부부교육을 시행한 것을 시초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별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부문 지원책들의 중복·누락 현상은 서비스 효과성의 저해와 비용낭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단지 결혼이민자 가족의 현황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어진 연구들로 집중되어 왔다. 결혼이민자 본인 및 대상가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 지원기관에 대한 현황분석과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서비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현황 조사와 기관별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의 기관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의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3.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의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기관별 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에 관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선행연구, 그리고 관련 보고서를 조사·분석하였다.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비교·분석 하기위해 국공립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서울·경기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가족생활프로그램의 현황과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생활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된 위의 세 기관별 사업영역은 교육, 상담, 문화, 자녀보호, 자조집단, 네트워크형성의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크게 개인(결혼이민자 여성과 그의 배우자인 남성)과 가족(자녀, 부부, 친족)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국공립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가족생활프로그램 현황조사는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 해당 정부 부서 활동 보고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치구 발행 백서와 연구 보고서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된 기관은 전국의 국공립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서울·경기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중 2007년 현재 결혼이민자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공립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14개 기관이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1개 기관이며, 종합

사회복지관은 11개 기관의 프로그램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에 의해 프로그램 다시 유목화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선행 연구 고찰

1.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

최근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사회진출의 증가,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 각종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외적, 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형적으로 독신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조손 가족과 같은 형태가 새롭게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의 중 하나가 국제결혼이다. 통계청의 2007년 발표 결과에 의하면 2006년 국제결혼의 비율이 11.9%(39,6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5	398,494	13,494 (3.4)	10,365 (2.6)	3,129 (0.8)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자료 : 통계청, 2006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7.

는데 이는 1990년 1.2%에서 약 10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국제결혼은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한국인 부인의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전자의 비율이 1990년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것이라고 예측해 볼 때 앞으로 이들이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천적 뒷받침이 되어야할 것이다.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여성들의 국적은 주로 일본, 동남아시아 및 저개발국가로서 초창기 일본 및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 필리핀, 베트남, 몽골로 그 대상과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다. 200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던 중국 여성과의 결혼은 2005년을 정점으로 2006년부터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반면, 베트남 여성들이 2005년부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장온정, 2007).

과거의 국제결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소수에 의한 특정 경험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전환은 1980년대 후반 통일교가 결혼을 주선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통일교는 이상적인 참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종교적 이유를 빌어 농촌총각과 일본여성들의 결혼을 주선하였다. 그리고 1992년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재개되면서 조선족 여성의 방문과 취업이 증가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설동훈(2006)의 연구에서 초기 국제결혼의 파트너 여성 국가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2. 결혼이민자 가족 관련 선행연구 고찰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서비스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보다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가족생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 결혼이민자 가족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시부모관계 등이 포함된 가족관계와 개인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 가족의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결혼적응(만족도)에 대한 연구, 갈등관계 연구, 의사결정 등의 연구로 종합될 수 있다(설동훈, 2006; 채옥희 외, 2006; 양순미, 2006; 박경은, 2007; 장온정, 2007). 설동훈(2006)과 채옥희 외의 연구(2006)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결혼한 부부만족도보다 높은 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박경은(2007)은 이민자 여성들은 친밀감과 신뢰, 성생활, 대화정도, 가사노동 분담 등 부부관계 전반에 있어서 남편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의사결정 유형에서 가족생활전반에서 “부부공동결정”이 많았으나, ‘재산관리’는 한국인 남편이, ‘자녀양육과 생활비지출, 아내취업결정’에서 외국인 아내가 결정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혼 적응 관련변인을 살펴본 연구에서 양순미(2006)는 농촌의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적응에 영향변인으로 부부의 상호작용 정도, 언어 및 의사소통 정도를 제시하였다. 또,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적응정도와 상호작용변인을 제시하였다. 장온정(2007)은 국제 결혼한 남편의 결혼적응 관련 변인에서 남편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부간 의사소통, 전통적 가족주의적 태도, 부부갈등, 자문화 전달 태도라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2006)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학대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26%가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고, 언어적 학대가 28.1%, 신체적 학대가 9.5%, 성학대가 9% 이 외 기타 유형의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염

(2004)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겪는 부부문제에 가정폭력, 성적학대와 인격모독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건복지부(2005)의 국제결혼한 사람의 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10-14%를 차지하였다.

둘째, 결혼이민자 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양육관련 문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상의 문제, 자녀의 적응문제 등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한건수, 2006; 우룡, 2007).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제기되고 있다. 한건수(2006)는 외국인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신 때문에 자녀의 언어 및 지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은 한국 가정의 자녀양육 방식이 모국과 비교해 다르다고 느끼고 가부장적이거나 한국적인 방식을 강조하는 시부모와 남편과의 갈등, 자녀관의 차이, 양육지지 환경의 부족 등의 경험들이 나타나고 있다(김도희 외, 2007 재인용; 보건복지부, 2005; 전만길, 2005; 신경희, 2004).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의 어려움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낮게 나타나서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있어 어려움이 예측되며, 이 외에 집단 따돌림(설동훈, 2006; 보건복지부, 2005), 학습능력이 저하, 심리·정서적 문제발생, 학교에서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또래집단과의 갈등 표출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룡, 2007; 보건복지부, 2005; 정은희, 2004).

셋째,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경험하는 시댁식구와의 문제는 시부모와의 고부갈등, 시댁 식구의 지나친 개입 등이다. 여성이민자와 시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원인은

세대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생활습관의 차이 등에서 발생한다(홍기혜, 2005). 더하여 시부모의 엄격함과 수발에 대한 어려움,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과도한 부양요구,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통제(외출에 대해 부정적이며 외부사람과의 접촉 싫어함) 등도 시댁과의 문제라고 언급하였다(박정윤 외, 2007). 우리사회는 다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공존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서 며느리의 출신국가에 대한 편견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개인의 성격과 성향으로 간주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더하여 며느리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어 가족관계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장온정, 2007).

넷째로,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문제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언어 불일치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6; 한건수, 2006; 박경은, 2007; 김경신, 2006; 보건복지부, 2005),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응문제(김오남, 2006; 윤형숙, 2004), 정서적 문제, 취업문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반 국내결혼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혼인형태는 재혼비율이 높으며, 가구구성에 있어서는 부부가족과 시부모(시댁식구)의 동거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족가치관에 대하여서는 노부모 부양은 아들·딸 관계없이 공평해야하고, 남편과의 가사분담도 함께 해야 한다는 양성 평등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보건복지부, 2005). 결혼 이민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족형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부위계에 대한 생각,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남편의 술과 도박,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시부모의 간섭이나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으로 인해서 갈등을 느낀다고 하였다

(김경신, 2006; 박정윤 외, 2007). 또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불안정성은 의사소통의 불편함, 문화배경과 가치관의 이질성, 한국인 부모나 친척들의 냉담함이나 거부적인 태도에 기인한다고 하였다(김유경, 2005).

한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06.12)와 「국내체류 외국인 기초실태조사」(법무부, 2006.4)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이 국내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외로움’,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여성들의 정서적 문제가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내향적 성향과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주변지지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의 호소, 불안감, 자녀에 대한 죄책감 등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박정윤 외, 2007).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았으나(박경은, 2007; 박정윤 외, 2007; 여성가족부, 2007) 현실적으로 자녀양육 문제, 마땅한 일자리 부족 등이 취업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IV.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현황 분석

1. 기관별 프로그램 개설현황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기관별로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이하 ‘결혼이민자센터’라 한다), 국·공립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공립기관’이라 한다) 그리고 서울·경기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관별 프로그램 개설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 전체에서 개설·운영하고 있

<표 2> 기관별 프로그램 개설현황

기관명 사업 구분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국·공립 기관 지방자치 단체	종합사회 복지관 (서울· 경기)	합 계 (%)	
교육사업	41	30	24	95	30.7
상담사업	15	6	9	30	9.7
문화사업	73	31	23	127	41.1
자녀보호 사업	27	5	5	37	12.0
자조집단 사업	11	1	2	14	4.5
네트워크 형성	3	1	2	6	1.9
계	170	74	65	309	100.0

는 프로그램은 총 309개로서 각 프로그램 간 상호연관성에 따라 교육·상담·문화·자녀보호·자조집단·네트워크 등의 6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대상 프로그램 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은 문화사업이며, 전체사업의 41.4%인 127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사업(30.7%), 자녀보호사업(12.0%), 상담사업(9.7%), 자조집단사업(4.5%), 네트워크형성(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2개 문화사업과 교육사업은 전체프로그램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중현상은 결혼이민자 당사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우선적 지원’에 중점을 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던 문화센터 시스템을 변형·수정하여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개설,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단시간 내에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기관별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부록 1 참조> 결혼이민자센터가 170개의 프로그램을 개

설·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기관은 74개, 그리고 복지기관은 65개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사업 관련 프로그램 95개 중 41개(43.2%), 상담사업 30개중 15개(50%), 문화사업 127개중 73개(57.5%), 자녀보호사업 37개 중 27개(73%), 자조집단사업 14개 중 11개(78.6%)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사업 6개중 3개의 프로그램(50%)이 결혼이민자센터에서 개설·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각 기관 내 프로그램 점유율을 살펴해보았다. 위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센터의 경우 170개 운영사업 중에서 42.9%에 해당하는 73개의 프로그램이 문화사업 분야이며, 다음으로 교육사업(24.12%), 자녀보호사업(15.9%), 상담사업(8.8%), 자조집단사업(6.5%) 및 네트워크형성(1.8%) 순으로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국·공립기관의 경우 총 74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사업(41.9%)과 교육사업(40.5%)이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타 기관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하였다. 교육·문화 사업은 타 기관 개설·운영 비율과 비교 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조집단사업 및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한 사업은 각각 1.4%(각 1개 프로그램)의 저조한 비율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조집단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서울·경기지역 복지기관의 경우 총 65개의 프로그램이 개설·운영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두 기관과 마찬가지로 교육사업(36.9%)과 문화사업(35.4%)은 72.3%라는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앞의 두 기관이 문화→교육 순서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문화 순서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문화 사업과는 달리 상담사업(13.8%), 자녀보호사업(7.7%), 자조집

단사업 및 네트워크 형성(각각 2개 프로그램)은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자조집단사업과 네트워크 형성 부분은 국·공립기관과 마찬가지로 가장 부진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기관 및 복지기관은 편중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형태를 보이는 반면, 결혼이민자센터는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축적된 경험의 결과로 얻은 프로그램의 다양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대상별 프로그램 개설현황

각 기관이 개설·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표 3>와 같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사업은 크게 개인과 가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아내와 남편(개인), 자녀, 부부, 친족(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세 기관 모두 6개 사업에서 결혼이민자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른 대상의 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남편)를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결혼이민자센터에서는 교육, 상담, 문화사업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육과 자조모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공립기관과 복지기관에서는 열린 아버지학교 등의 교육관련 프로그램만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민자부부 대상의 교육사업은 결혼이민자센터와 국·공립기관에서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센터는 부부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부교실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문화적·언어적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부를 대상으

로 한 사업 중 상담 사업은 결혼이민자센터와 국·공립기관에서 실시하며, 복지기관에서는 상담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상담사업과 자녀보호 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세 기관 모두 자녀 대상 상담사업과 보호 사업이 함께 개설·운영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센터에서는 자조집단모임 및 자녀보육프로그램이, 국·공립기관 및 복지기관에서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등의 결혼이민자 자녀대상 프로그램이 개설·운영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상담과 문화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친족 관련 프로그램은 시부모 자조모임으로, 여성결혼

<표 3> 대상별 프로그램 개설현황

대상구분		기관명	결혼	국·공립	종합사회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기관 & 자치단체	복지관 (서울· 경기)
개 인	여 성	교육사업	0	0	0
		상담사업	0	0	0
		문화사업	0	0	0
		자녀보호 사업	0	0	0
		자조집단 사업	0	0	0
		네트워크 형성	0	0	0
	남 성	교육사업	0	0	0
		상담사업	0	-	-
		문화사업	0	-	-
가 족	자 녀	상담사업	0	0	0
		자녀보호 사업	0	0	0
	부 부	교육사업	0	0	0
		상담사업	0	0	-
	친 족	상담사업	0	0	-
		문화사업	0	-	-

이민자를 며느리로 둔 시부모들 간의 생활방식·언어·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며느리의 모국에 관한 정보 즉, 문화 및 생활방식의 이해를 돕는 기회로 시부모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국·공립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사업이 있으나 복지기관에서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프로그램 내용별 개설·운영 현황

1) 교육 프로그램별 개설·운영 현황

결혼이민자 지원 서비스 전체에서 30.7%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상

〈표 4〉 관련 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현황

기관명 내용구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교육 사업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실, 한국어가정방문교육, 한국어 초급-중급 한국어모듬교육	16	한국어교육	14	한글교육	11	
	직업 교육	자격증 취득	베이커리, 한식조리, 운전면허	5	-	-	-	-
		취업	원어민강사, 가정폭력상담사, 직업능력향상 교육, 직업상담원양성교육, 의류리폼사, 다문화강사, 피부마사지, 네일아티스트		원어민강사양성, 취업·창업 교육 직업훈련교육	2	직업 찾기	1
		기타	뜨개질수업		찰흙공방, 민화교실, 한지공예 노래배우기	5	노래교실 태권도	2
	정보화교육	이주여성정보화, 미디어, 컴퓨터교실, 인터넷교실	9	컴퓨터	2	컴퓨터 교육 미디어 교육 디카 교실	5	
	교육	한국어강사 양성교육, 한국어자원봉사교육, 한국어강사 간담회, Happy Family 자원봉사단 대상 한국어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전문강사교육,	9	한국어강사교육 전문강사교육	2			
	가족 생활 교육	부부 교육	배우자프로그램, 부부교실 가정폭력 교육, 가족과 성	12	부부관계증진	1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남편모임 부부교육	2
		부모 교육	부모교육, 이유식교육,		열린아버지학교 자녀양육, 육아교실, 보육·출산교육	3	아버지-어머니 학교	1
		기타	가족교육, 가족관계증진 교육, 가족세미나, 여성폭력예방교육, 일상생활문화교육		경제교육, 소방교육 및 시범 소방안전교육	2	가족기능강화 특기적성교육	2
	합계			51		31		24

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교육 사업은 크게 한국어(한글)교육, 직업교육, 정보화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가족생활교육 영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부부갈등요소의 대표적 원인이 되는 언어소통의 불편함(김오남, 2006)을 최소화하고자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세 기관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이민자센터 16개소, 국·공립기관에서 14개소 그리고 복지기관 11개소에서 한국어(한글)교육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요인이며 이주자 지원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모든 기관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사업의 운영 면에서 결혼이민자센터는 교육환경, 교육 수준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반면 정부기관과 지역사회복지관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직업교육분야에서는 5개의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자격증 취득, 취업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격증취득과정으로는 베이커리, 한식조리, 운전면허 취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공립기관과 복지기관에서는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국·공립기관의 경우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개설·운영 중이었으며 복지기관은 구직정보 정도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국·공립기관은 2군데에서 취업교육을, 다른 5곳의 기관에서는 기타 직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기관에서도 직업교육 1곳, 기타 부문의 2곳에서 직업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센터와 국·공립기관에서는 원어민강사양성과 직업훈련교육(의류

리폼사, 다문화강사, 피부마사지, 네일아티스트)등이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센터는 가정폭력상담사, 직업능력향상 교육, 직업상담원 양성교육이, 국·공립기관은 취업·창업 교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기타교육은 국·공립과 복지기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직업교육은 지금과 같이 획일화된 프로그램 운영에서 탈피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 연령, 모국에서의 직업, 한국어 사용 수준 및 자녀유무, 시댁식구와의 동거여부 등 가족특성과 당사자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민자 여성의 거주지(도시 또는 농촌)에 따라서도 차별화 된 직업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관련 교육이다. 그 외에 결혼이민자센터의 이주여성정보화교육, 미디어교육을, 복지기관의 미디어교육과 디카교실을 들 수 있다. 전문가양성교육부분에서는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진출독려와 자기역량강화 및 봉사적 측면이 강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강사 양성교육, 한국어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전문 강사교육이 있다.

교육사업 중 가족생활교육 사업은 부부교육, 부모교육, 자녀교육, 기타 등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부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부부교육은 총 11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모교육부분은 총 8가지 유형의 프로그램, 가족관계교육은 총 4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센터는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교육, 가정폭력교육, 여성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나머지 2개 기관보다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였다. 국·공립기관은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을, 복지기관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남편모임,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교육의 프

로그램 내용별 구성에서 결혼이민자센터는 부모교육과 이유식 교육을, 국·공립기관에서는 열린 아버지학교, 자녀양육(육아)교실, 보육·출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기관에서는 아버지·어머니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생활교육 기타부문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적 측면의 요소가 강한 가족교육, 가족관계증진교육, 가족세미나 프로그램을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공립기관은 일상생활과 안전·예방 측면이 강한 경제교육, 소방교육 및 시범, 소방안전교육을, 복지기관에서는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교육과 특기적성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상담 프로그램 개설·운영 현황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사업 중 상담 프로그램의 현황은 하단의 <표 5>에 해당한다. 상담

프로그램은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및 지지모임 등으로 나뉘어 총 61개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상담사업 프로그램을 상담참여 대상자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개인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프로그램은 위 <표 5>에서 보듯이 결혼이민자센터 34곳에서 개설·운영 되고 있으며 국·공립기관 4곳, 복지기관 6곳에서 개인 또는 가족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상담은 전국 16곳의 결혼이민자센터, 국·공립기관 3곳, 복지기관 4곳에서 제공되고 있다. 개인상담을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결혼이민자센터가 가장 주도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서적 지지, 법률상담, 사회성·행동문제치료 등이며, 미술치료, 셀프 영화상담, 자녀놀이치

<표 5> 관련 기관의 상담 프로그램 개설·운영 현황

기관명 내용구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상담사업	개인상담	전화상담, 법률상담, 미술치료, 셀프영화상담, 자녀놀이치료	16	전화상담 성폭력상담 미술치료	3	종합상담 법률상담 성폭력상담	4
	가족상담	부부상담, 가정방문상담, 가족상담캠프	12	가족상담	1	가정폭력상담	2
	집단상담	집단상담	6	-	-	-	-
	자조모임	자조집단형성, 배우자모임, 자조모임, 결혼이민자가정방문, 농악동아리형성, 자조집단지도자양성교육 면단위리더모임, 출신국별 자조모임, 결혼이민자여성 자조모임, 가족♡가족, 시부모모임	10		1	지역별모임 외국인아내모임	2
지지모임 (멘토링)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 청소년 멘토링, 이주가정-국내가정 연결, 한국인 친정어머니 만들어주기, 산모도우미 지원, 국내가정결연 매칭 및 교육	2	멘토링, 청소년 멘토링	1	멘토링	1	
합계		46		6		9	

료 등의 치료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은 결혼이민자센터 12곳, 국·공립기관 1곳 그리고 복지기관 2곳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가족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센터는 가족상담, 부부상담, 가정방문상담, 가족 상담캠프, 이주가정-국내가정 연결 등을, 국·공립기관에서는 가족상담, 그리고 복지기관에서는 가족상담 외 가정폭력상담 등의 가족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타 기관 상담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형태를 넘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상담은 결혼이민자센터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개 기관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 세 기관 모두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과 지지모임(멘토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18개의 프로그램 중 결혼이민자센터가 12곳, 국·공립기관 3곳, 종합사회복지관 3곳에서 모임이 결성·운영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여성 뿐만이 아니라 시부모의 모임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두 기관(국·공립기관, 복지기관)과는 달리 적극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공립기관에서는 자매결연모임을, 복지기관에서는 지역별 모임과 외국인 아내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양적, 대상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자센터가 가장 관심을 두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지모임(멘토링) 프로그램 영역의 경우 결혼이민자센터는 2곳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기관과 복지기관 각각 1곳에서 지지모임(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센터와 국·공립기관의 (한국인)친정엄

마 만들어주기 프로그램은 결혼과 동시 비교적 출산이 빠른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시집을 온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많은 심적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본국에 남겨두고 온 가족의 소중함과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대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3) 문화 프로그램 개설·운영 현황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사업 중 문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문화사업 프로그램은 크게 문화교육과 문화체험, 기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센터에서는 총 17곳, 정부기관은 5곳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4곳에서 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문화교육은 다시 생활문화교육과 교양교육으로 구분되며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생활, 전통, 문화홍보로 구분되어있다.

생활문화교육에서는 식생활관련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리교실, 한국음식, 한국 전통음식 등) 예절관련교육부분(예절교실, 예절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양교육영역에서 한국역사관련 프로그램을 결혼이민자센터와 국·공립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한국의 역사 사회적 배경교육과 우리역사 이해하기) 차 문화와 관련된 교육은 결혼이민자센터에서 '다도교실'로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는 '다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활문화교육은 한국의 가족문화를 (의·식) 중심으로 그 외에 육아, 문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외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교육내용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양교육 역시 소모적이고 비실용적인 전시적 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18곳의 결혼이민자센터, 18곳의 국·공립기관 그리고 16곳의 복지기관에서 개설·운영하

〈표 6〉 관련 기관의 문화 사업 개설·운영 현황

기관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문화교육	생활문화교육	17	요리교실 예절교육 한국문화교육 한국요리(전통) 김장하기, 민화, 독서	3	한국음식 김치담그기(배우기), 송편만들기	3		
	교양교육		온몸으로 인사하기 우리역사 이해하기		찾아가는 의례교실 예절, 다도		1	
문화체험	생활문화체험	18	문화체험 가족나들이(소풍) 가족행사 일상생활체험 직업체험 공방(도자기 가마) 생태체험, 밭 맛사지 경주한옥체험 박물관(역사)방문, 친정엄마만들기 어린이날 행사 성탄(축제)파티	6	문화체험 현장학습 국제결혼가정의날 생활문화체험 지역문화탐방,	7		
	전통문화체험		한국문화, 예절교육 전통문화·음식체험, 민속촌방문		한국문화, 전통음식		2	
	문화홍보		문화탐방 공연관람 사찰답사 가족캠프 한국어 경연대회 노래경연대회 한국음식경연대회 이민자- - 가족문화축제 - 가족체육대회		8		가족캠프 어린이날행사 음식경연대회, 체육대회	7
기타	학술	2	이민자가정매뉴얼, 교육용교재	2	-			
	의료		의료지원, 건강검진 산모신생아 도우미 시험관 아기시술		의료지원 무료진료		3	
	이벤트		NAL자-프로젝트 (친정나들이)		1		외국친정나들이 (여행경비지원)	1
	홍보물		리플렛제작 매체홍보		8		캠페인	1
합계		45		29		25		

고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타 영역에 비해 세 기관 모두가 활발한 활동을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문화체험사업 중 생활문화체험은 문화교육에 그치지 않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측면에서 세 가지 유형의 기관들 모두 음식과 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민자센터의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과 전통혼례, 국·공립기관의 한국문화, 전통문화 및 음식체험 그리고 복지기관의 한국문화와 전통음식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식문화’에만 치중되어 있음으로 한국의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여러 문화들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동화적 측면(melting-pot theory)에서 남편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각 국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모국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센터의 몽골음식 만들기 와 다문화연극 극단 ‘톡톡’ 연극공연과 국·공립기관의 다문화작품전과 이민자 가족문화축제 및 세계문화축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과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량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문화사업 중 학술, 의료, 이벤트, 홍보가 분류되어있는 기타부문의 경우 비용문제와 기타 제반사항의 어려움으로 많은 프로그램 수를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기관들이 모두 의료분야 프로그램은 제공하였지만 학술부분에 있어서 복지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민자센터

에서 운영하는 학술과 연관된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지킴이 책자개발, 결혼이민자가족수필집 출판기념회 등이 있으며, 국·공립기관의 경우 이민자가정매뉴얼 및 교육용교재 제작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의료적 측면에서는 결혼이민자센터는 의료진료, 찾아가는 한의서비스 및 한방진료를, 복지기관의 경우 의료지원과 무료진료가 조사되었다. 문화사업 내 학술과 의료부문은 비록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국·공립기관과 복지기관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이 결혼이민자센터 보다 양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문화 관련영역에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홍보물 부문에서 리플렛 제작과 매체홍보를 담당하고 있었다. 국·공립기관과 복지기관에서는 이벤트 부문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방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국·공립기관의 친정나들이 프로젝트인 NAL-자 프로젝트와 복지기관의 외국인 친정나들이(여행경비지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공립기관에서는 홍보물 관련 사업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복지기관은 캠페인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자녀 보호 프로그램 개설·운영 현황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사업 중 자녀보호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래 <표 7>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자녀보호 프로그램 사업은 다시 교육, 보호, 기타 지원 사업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지도와 문화지도로 나뉘지며 구체적인 사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학습지도관련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수학 학습, 아동미술, 미디어교육, 몽골어교육, 음악 교육, 방과 후 학습, 영어교육, 개별방문학습지도 등이 있고, 문화지도 프로그램은 재즈댄스 강습, 자녀를 위한 즐거운 공부방, 문화 교육

〈표 7〉 자녀보호 프로그램 개설·운영 현황

기관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양육 서비스	자녀 교육	학습지도(한국어교육, 수학학습, 아동미술, 미디어교육, 몽골어교육, 음악교육, 방과 후 학습, 영어교육, 개별방문학습지도)	6	학습지원	5	방과 후 교실	5
		문화지도 (재즈댄스강습, 자녀를 위한 즐거운 공부방, 문화 교육 아카데미, 놀이지도 및 동화읽기, 인권교육, 러시아교육, 한솔교육희망특공대, 자녀사회적응능력향상, 아기사랑)					
	자녀 보호	보육서비스, 보육지원, 자녀수탁 어린이방 운영	9				
	기타	자녀-친구맺기, 교육비 지원, 외국어캠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 도서대여	3				
합 계		18		5		5	

아카데미, 놀이지도 및 동화읽기, 인권교육, 러시아교육, 한솔교육희망특공대, 자녀사회적응능력향상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습지도 프로그램 중 몽골어 교육과 문화지도 프로그램 중 러시아교육은 자녀가 어머니의 모국을 이해하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녀보호사업 영역에는 보육지원, 자녀수탁 어린이방 운영 등이 조사되었는데 기존의 자녀교육관련 사업에서 자녀가 수혜자였던 것과는 달리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자녀의 부모이며, 기타 자녀지원 서비스로 자녀-친구 맺기, 교육비 지원, 외국어캠프

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 도서대여 등이 있다.

국·공립기관과 복지기관은 자녀교육사업 내 학습지도 관련 프로그램과 문화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국·공립기관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복지기관은 방과 후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자녀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민자센터와는 달리 국·공립기관 복지기관은 구체적인 프로그램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한국생활과 언어에 불편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전달이 어려워지므로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표 8〉 네트워크 사업 현황

기관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종합사회복지관 (서울·경기)	
	기관명	운영 기관	기관명	운영 기관	프로그램 명	운영 기관
네트워크	지역축제 참가, 한국어교실 협력기관 협약, 한국어교실 운영기관 간담회, 군여성단체협의회와 자매결연, 관내 협의체 구성, 자원봉사자 연계지원, 관내 보육시설 연계, 지역아동센터 결연	14	강원 원주시 여성결혼이민자 지역통합프로그램	1	지역사회 부녀회	2
합 계		14		1		2

있을 수 있다는 문제 활동을 지적해 볼 수 있다.

5)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사업 중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표 8>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결혼이민자센터가 국·공립기관 및 복지기관에 비해서 양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개별적 특성도 다른 두 기관의 프로그램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부문에 있어서 지역 내 연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지역 내 연관기관 역량강화 교육 참가, 지역축제 참가, 한국어교실 협력기관 협약체결, 자원봉사자 연계지원, 관내 보육 시설 연계 등은 결혼이민자센터가 주축이 되어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사회의 주요 기관들과의 연계를 도출하여 지속적인 상호관계형성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최근 몇 년간 국내 결혼이민자가족의 급증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앞다투어 해당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생활 현황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원기관들의 운영실태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을 하는 기관들의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발전적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 운영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결여로 인한 지원 사업 내용의 중복과 누락을 들 수 있다. 조사된 6개 사업별 세부 프로그램에서 같은 내용의 프로그

램을 두 군데 또는 세 군데 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한국어·컴퓨터 교육, 상담사업 분야에서 전화 및 일반상담 등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사업 부문에서 요리, 예절 및 전통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이 가장 많이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축제나 행사 등의 중복은 행사운영의 질적인 측면에서 제고해 보아야 하며, 재정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기관간의 조정의 의해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성을 고려하여 획일화된 서비스보다는 지역의 특성화와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한 맞춤형서비스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 특정 분야에 편중된 지원사업의 운영이다. 조사된 세 가지 유형별 기관 동일하게 교육사업과 문화사업 사업운영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업이 전체 지원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8%로서 결혼이민자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교육과 문화사업으로 편중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사업의 운영기관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67%, 국공립단체 82.4%, 복지기관의 경우 72.3%가 교육과 문화사업의 운영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해서 각 기관의 사업운영 목적을 반영한 특성화, 차별화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관의 사업운영 목적을 살린 특성화된 지원 사업은 사업운영의 지속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차별화된 대상자선정을 통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가족단위의 상담사업 운영 및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생활교육 특성화를, 국공립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금동원력과 대규모인력수급이 필요한 대형 사업과 산학 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술, 직

업교육, 취업교육개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욕구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기관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 중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별사례관리에 중점을 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편중된 사업을 결혼이민자가족과 지역사회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기존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동화를 목적으로 한 동화주의(melting-pot theory)에 편중된 사업운영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향후 운영될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지역사회주민들에게 타문화의 존중을 기반으로 타문화를 익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부록 1〉 기관별 사업현황

기관구분	사업구분					
	교육	상담	문화	자녀양육 관련	자조	네트 워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41 (24.1)	15 (8.8)	73 (42.9)	27 (15.9)	11 (6.5)	3 (1.8)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30 (40.5)	6 (8.1)	31 (41.9)	5 (6.8)	1 (1.4)	1 (1.4)
종합사회 복지관	24 (36.9)	9 (13.8)	23 (35.4)	5 (7.7)	2 (3.1)	2 (3.1)
전체	95 (30.7)	30 (9.7)	127 (41.1)	37 (12.0)	14 (4.5)	6 (1.9)

〈부록 2〉 연구 조사대상 기관 및 단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종합사회 복지관
1	강원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일산종합 사회복지관
2	안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정보 도서관교육 센터
3	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의정부시	오산종합 사회복지관
4	김해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강동구청	안성사회 종합복지관
5	예천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송파구청	부락종합 사회복지관
6	구미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담양군	흰돌마을 종합사회 복지관
7	광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청주시청	작은자리 종합복지관
8	대구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안성시청	녹번 종합사회 복지관
9	대전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강동구청	안양전진상 복지관
10	부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마포구청	신길종합 사회복지관
11	서울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원주시청	봉천종합 사회복지관
12	울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남부여성발전 센터	
13	인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한국여성재단	
14	여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 공단	
15	영암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6	익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7	장수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8	제주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9	아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0	당진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	청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참 고 문 헌】

- 1) 강석광(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3)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국제사회문화연구전공 석사학위논문.
- 4) 김갑현(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경신(2006). 결혼이민자가족의 수용과 정책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1-42.
- 6) 김도희 외(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3), 53-78.
- 7)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8) 김유경(2005).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통원 103.
- 9)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10) 농림부(2006). 농촌지역국제결혼실태와여성 결혼이민자지원방향.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연구보고서, 295-320.
- 11) 박경은(2007).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와 정책 지원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12) 박정윤 외(2007).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 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위한 비전 선포, 대한가정학회지 창립 60주년 기념통합 포럼 및 기념식 자료집, 89.
- 13) 법무부(2006). 국내체류 외국인 기초실태조사. 법무부.
- 14)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15) 설동훈(2006). 한국의 결혼민자 가족 : 현황과 정책, 결혼이민자 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0.
- 16) 손은록(2004).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8) 신란희(200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 심선진(2004). 국제결혼과 여성폭력 -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전라남도 여성정책과.
- 20)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21) 안현정(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안현주(2006).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 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안혜옥(2006).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 이주여성 부부의 적응과 결혼만족에 작용하는 요인 분석, 결혼이민자 가족 :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17-231.
- 25) 여성가족부(2006).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 결과보고. 여성가족부 위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26) 우룡(2007).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 다문화가족 실태와 청소년 정책 방향. 평택대학교 다문화센터·한국청소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9-95.
- 27)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 28) 이강숙(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실태조사 및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강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9)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 제안을 위한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센터.
- 30) 이태옥(2006).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 연구.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임안나(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장은정(2007).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33) 전만길(2005). 외국인 주부 한국생활 실태조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4) 전라남도(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
- 35) 전라남도 여성정책과(2004).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 36)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 연구 13(3).
- 37) 조혜영(2007).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 및 교사의 인식 :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38) 채옥희 외(2006). 국제결혼가족의 가정생활 적응 전략 :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45-106.
- 39)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6). 충남 국제결혼 가족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 개발원.
- 40) 통계청(2006). 2005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 41) 표현영(2004).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남대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2)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43)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이주여성 인권센터.
- 44)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 석사학위논문.
- 45) 홍달아기(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46) 새마을 중앙회.
- <http://saemaul.com>
- 47) 한국여성재단(삼성생명, 한국여성의전화).
- <http://www.womenfund.or.kr>
- 48) 아산사회복지재단.
- <http://www.asanfoundation.or.kr>
- 49) 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 <http://www.bongchuny.or.kr>
- 50) (사)청년여성문화원.
- <http://kr.blog.yahoo.com>
- 51) 남부여성발전센터(서울여성플라자).
- <http://nambu.seoulwomen.or.kr>
- 52) 강동구청.
- <http://www.gangdong.go.kr>
- 53) 마포구청.
- <http://www.mapo.seoul.kr>
- 54) 신길종합사회복지관.
- <http://singil.org>
- 55) 녹번종합사회복지관.
- <http://www.nokbeon.or.kr>
- 56)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http://www.wmigrant.org>
- 57) 푸른시민연대.
- <http://www.epurun.org>
- 58) 농협경기지역본부.
- <http://www.kyeongin.com>
- 59) 성남 YWCA.
- <http://www.snywca.or.kr>
- 60) 수원 YWCA.
- <http://www.swywca.or.kr>
- 61) 수원교구 엠마우스.
- <http://www.catholictimes.org>
- 62) 일산종합사회복지관.
- <http://www.ilsanwelfare.or.kr>
- 63) 아시아의 친구들.
- <http://www.foa2002.or.kr>
- 64) 경기 제2청사(남양주외국인근로복지센터, 이주노동자여성센터, 흰돌마을 종합사회복지관, 일산조선족복지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파주뜯성폭력상담소).
- <http://north.gg.go.kr>
- 65) 의정부정보도서관교육센터.
- <http://www.uilib.net>
- 66) 오산종합사회복지관.
- <http://www.osanwelfare.co.kr>
- 67) 안성사회종합복지관.
- <http://www.acwc.or.kr>
- 68) 부락종합사회복지관.
- <http://www.burak21.or.kr>
- 69) 아시아의친구들.
- <http://www.foa2002.or.kr>
- 70) 조리읍주민자치센터.
- <http://www.pajuro.net>
- 71) 구리시립도서관(인창).
- <http://www.gurilib.go.kr>
- 72) 작은자리종합복지관.
- <http://www.jakunjari.or.kr>
- 73) 안양전진상복지관.
- <http://www.kafi.or.kr>
- 74) 하남외국인비전센터.
- <http://www.hmigrant.org>

- 접수일 : 2008년 4월 02일
- 심사일 : 2008년 4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6일